
	<h2>보 도 자 료</h2>	작성부서	예 방 안 전 과 재난영향분석과 안 전 연 구 실
 행정안전부	<p>2018년 12월 12일(수) 조간 (12. 11. 14:0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담 당	예방안전과장 지만석 재난영향분석과장 임재웅 안전연구실장 이종설 사무관 이선무 서기관 박종빈 연구관 신진동
		연락처	044-205-4510 044-205-5160 052-928-8100 044-205-4514 044-205-5165 052-928-8101 010-3437-7577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7년 통계 기준〉

- 안전사고 사망자 지속 감소, 화재 사망자는 증가 -

- ▶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인천·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
 <자연재해>는 서울·충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¹⁾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 : ⁽¹⁵⁾ 28,784명(10.4%) → ⁽¹⁶⁾ 28,218명(10.0%) → ⁽¹⁷⁾ 27,154명(9.5%)

○ 분야별로 보면, 교통사고, 자살 등에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화재는 최근 3년간('15~'17) 증가(249명→291명→338명)하였다.

1)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며,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특별·광역시(6개소)와 자치구(52개소)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분야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 OECD 비교2) >

분야 및 지표		한국('17년)	OECD 평균('15년)
화재	화재 사망자 수	0.5명	1.5명
범죄	살인 사망자 수	0.7명	1.9명
생활안전	낙상(추락) 사망자 수	4.5명	10.5명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8.1명	5.5명
자살	자살 사망자 수	26.5명	13.0명
감염병	결핵과 에이즈 사망자 수	4.9명	2.0명

□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7개 분야*별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³⁾를 공개하였다.

*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⑦자연재해

○ 지역안전지수 분야의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수(교통+화재+자살+감염병) : ('16) 20,128명 → ('17) 19,129명(△999명)
 △발생건수(화재+범죄+생활안전) : ('16) 722,421건 → ('17) 693,892건(△28,529건)

2) OECD의 최신 통계인 2015년 값과 우리나라 최신 통계인 2017년 값을 비교한 것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자 수, 사고 발생건수 등 분야별 위해지표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통계적인 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

- 분야별 1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서울·경기, ②화재는 인천·경기, ③범죄는 세종·전남, ④생활안전은 부산·경기, ⑤자살은 세종·경기, ⑥감염병은 울산·경기, ⑦자연재해는 서울·충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5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광주·전남, ②화재는 세종·충북, ③범죄는 서울·제주, ④생활안전은 세종·제주, ⑤자살은 부산·충남, ⑥감염병은 대구·경북, ⑦자연재해는 인천·경북이었다.
-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밑줄친 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이었다.
- 반면, 제주(생활안전, 범죄)나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 (세종의 생활안전 분야) 도시 형성기로 각종 생활안전 사고 지속 증가로 전체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위해지표 악화(세종 33.5건/만인, 전체 평균 25.0건/만인)
- ▶ (부산의 자살 분야) 자살자는 지속 감소 중이나 타 특·광역시의 감소폭보다는 적고 취약계층도 많은 편. 다만 자살예방기관 등은 양호한 수준
- ▶ (전남의 교통사고 분야) 인구 1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7개 시·도 중 2위, 상승률도 1위인 반면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는 1.9대로 최하위권 (15위, 시·도 평균 3.6대)
- ▶ (제주의 생활안전 분야) 생활안전 사고 건수가 작년대비 4.8% 감소되었지만 도 평균의 1.6배 수준. 추락사고 등에 취약한 건설업 종사자 또한 도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산업현장 안전관리 필요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이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이어서 경기 의왕(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과 울산 울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가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다.

○ 반면, 서울 종로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 (원인 분석·진단) 전통적인 구도심지역으로 인프라 노후화, 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분야별 위해지표가 악화(교통사고 사망자수 약 42% 증가 등)

< 기초자치단체 중 4년 연속 1등급 및 5등급 지역 >

분야	4년 연속 1등급(50)			4년 연속 5등급(48)		
	시(17)	군(24)	구(9)	시(17)	군(9)	구(22)
교통사고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광명	기장, 달성, 울주 증평, 울릉	-	논산, 김제 상주	보성	부산 광주 강서 동구
화재	수원, 안양, 군포	기장, 달성, 울주 울릉	-	포천	-	서울 서울 부산 종로 중구 중구
범죄	상주, 의왕, 계룡	진안, 신안	서울 대구 대전 울산	부천, 안산 수원, 속초 유성, 목포 북구	가평 양양 진천	서울 서울 부산 부산 대구 광주 종로 중구 동구 중구 동구
생활안전	광명, 군포	기장, 달성, 무안 칠곡	서울 양천	포천, 삼척 공주	가평 평창 산청	인천 광주 서울 서울 부산 중구 동구 종로 중구 강서
자살	의왕, 용인	달성, 울주	서울 대전	서초 유성	김제, 보령	부산 부산 부산 영도 동구 중구
감염병	계룡, 화성	기장, 달성, 울주 화천, 증평	울산 동구	논산, 상주 영천	청송 합천	부산 부산 부산 영도 동구 서구
자연재해	-	달성, 옹진	서울 마포	-	-	-

□ 지난해와 비교하여 등급이 변화한 비율은 약 51.7%로서 자연재해(70.4%) 분야의 등급 변화가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35.0%) 분야가 가장 적었다.

○ 등급 변화는 대부분(76.3%)은 1등급이었으며, 전북 장수(5→1등급)의 자살 분야가 최대 변화폭(4등급)을 기록했다.

- 특히, 인천(4→3→1등급)의 화재 분야, 서울(4→3→2등급)의 생활안전 분야, 부산(5→3→2등급)의 자연재해 분야는 최근 3년간 등급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승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 (인천의 화재 분야) 의료인력 증가(7.55%), 소방서 종사자수 증가(9.32%) 등을 통해 발생건수 당 화재구조실적 증가(8개 시 중 2위) 및 사망자 수 감소(환산 화재사망자수 17개 시·도 중 최저)
- ▶ (서울의 생활안전 분야) 건설현장 전자태그 인력관리제 도입 등 시 차원의 실행 가능한 안전관리대책 우선 시행

- 등급이 상승한 지역(62개소) 중 90%가 실제 사망자 수나 사고건수가 감소하였고, 하락한 지역(64개소)의 73%는 사망자 수나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올해 세부지표 중 일부를 개선하였는데,
 - 우선, 범죄와 교통사고 분야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자살 분야의 결혼 이민자와 같이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는 삭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거부감을 해소하였다.
 - 또한, 도시면적, 총 전입자수 등은 구조적으로 변경이나 개선이 힘들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에 따라 삭제한 대신,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대수 등을 추가하였다.

- 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또한, 지역 특성(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단순히 등급만으로 안전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 *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 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역(2%)
- 또한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나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공개 자체나 자치단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며,
 - “앞으로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 안전 분야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특히, 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지수에 반영되도록 개선한 만큼 올해 7월에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특·광역시(8개)**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서울특별시	1	2	5	1	2	2	2
2	부산광역시	2	4	4	2	1	5	4
3	대구광역시	3	3	2	3	2	4	5
4	인천광역시	2	1	3	5	4	4	3
5	광주광역시	5	3	3	4	3	2	4
6	대전광역시	4	4	4	4	4	3	3
7	울산광역시	3	2	2	3	3	3	1
8	세종특별자치시	4	5	1	2	5	1	2

□ **광역시도(9개)**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경기도	1	1	4	4	1	1	1
2	강원도	3	4	4	3	3	4	4
3	충청북도	2	5	3	1	3	3	3
4	충청남도	3	3	3	3	4	5	3
5	전라북도	4	3	2	2	2	4	3
6	전라남도	5	4	1	3	4	3	4
7	경상북도	4	3	2	5	3	3	5
8	경상남도	2	2	3	4	2	2	2
9	제주특별자치도	3	2	5	2	5	2	2

□ 1등급 지역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시 (75개소)	경기 성남 경기 안양 경기 구리 경기 수원 경기 광명 경기 부천 경기 의왕	경기 안양 경기 수원 경기 광명 경기 의왕 경기 오산 경기 안산 경기 군포	경기 의왕 경기 하남 경기 김포 충남 계룡 전남 나주 경북 영주 경북 상주	경기 안양 경기 수원 경기 광명 경기 의왕 경기 부천 경기 군포 경기 고양	경기 광명 경기 의왕 경기 구리 경기 하남 경기 김포 충남 계룡 경기 용인	경기 구리 충남 계룡 경기 오산 경기 화성 경기 시흥 경남 김해 경남 양산	경기 의정부 경기 과천 경기 오산 경기 군포 충북 청주 전남 목포 경북 안동
군 (82개소)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울산 울주 강원 화천 경북 울릉 충북 증평 충남 홍성 경남 남해	인천 옹진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울산 울주 경북 칠곡 경북 울릉 충북 진천 전북 장수	전북 진안 전북 임실 전남 신안 충남 청양 경북 군위 경북 예천 경북 봉화 경남 산청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울산 울주 경북 칠곡 강원 양구 전남 무안 전남 신안 경남 거창	대구 달성 울산 울주 경북 칠곡 강원 양구 경북 울릉 전북 장수 강원 인제 전남 구례	대구 달성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북 울릉 강원 화천 충북 증평 전북 임실 전남 화순	대구 달성 인천 옹진 강원 영월 충북 옥천 충북 증평 충북 진천 충북 단양 경북 영덕
구 (69개소)	서울 은평 서울 관악 부산 남구 부산 부산 해운대 부산 연제 인천 연수 대구 달서	서울 양천 서울 송파 서울 강동 부산 서구 인천 계양 인천 남동 서울 은평	서울 도봉 대구 수성 울산 북구 대전 유성 광주 남구 광주 광산 인천 연수	서울 광진 서울 동대문 서울 노원 서울 동작 서울 양천 서울 강동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서울 서초 서울 강남 부산 강서 서울 양천 대전 유성 광주 광산	서울 중구 대구 중구 인천 서구 울산 동구 서울 송파 서울 서초 광주 광산	서울 종로 서울 중구 서울 중랑 서울 도봉 서울 마포 부산 사상 대구 남구

※ 밑줄친 지역은 4년 연속 1등급

□ 5등급 지역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시 (75개소)	충남 보령 충남 논산 전북 정읍 전북 남원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북 정읍 전북 남원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천 강원 삼척 충북 제천	경기 수원 경기 부천 경기 평택 경기 안산 강원 원주 강원 강릉 강원 속초 전남 목포	전북 정읍 충남 보령 전북 남원 경기 포천 강원 삼척 충남 공주 충남 당진 경북 문경	전북 정읍 충남 보령 전북 남원 경기 포천 전북 김제 경북 영천 충남 공주 경북 문경	충남 보령 경북 영천 충남 공주 충남 논산 강원 삼척 강원 태백 경북 상주 경북 김천	경기 부천 경기 광명 경기 구리 강원 강릉 충남 서산 충남 당진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군 (82개소)	강원 양양 충북 보은 전북 장수 전북 순창 전남 곡성 전남 보성 전남 진도 경북 청도	경기 연천 강원 평창 강원 철원 전남 보성 경북 영양 경북 성주 경남 의령 경남 산청	부산 기장 경기 가평 강원 홍천 강원 횡성 강원 정선 충북 진천 강원 양양 경북 영덕	인천 옹진 강원 평창 경기 가평 충북 괴산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남 곡성 경남 산청	전남 보성 경남 의령 충북 영동 충북 보은 충남 부여 충남 청양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경남 의령 경북 의성 경북 영덕 전북 순창 경북 청송 경북 봉화 경남 남해 경남 합천	경기 가평 충북 괴산 충남 부여 경북 의성 경북 청송 경북 청도 경북 성주 경남 산청
구 (69개소)	서울 종로 부산 강서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 대전 동구 대전 대덕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대전 중구 서울 종로 부산강서 광주 북구 대전 대덕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서울 중구 부산 중구 광주 동구 광주 동구 서울 종로	인천 중구 대구 중구 서울 중구 부산 중구 광주 동구 부산 강서 서울 종로	부산 영도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중구	서울 강북 부산 서구 부산 영도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부산 동구 서울 종로	부산 영도 부산 강서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남구 대전 유성 울산 중구

※ 밑줄친 지역은 4년 연속 5등급

붙임 3

3년 연속 상승 및 하락 지역(기초)

분 야	3년 연속 상승(39개소)			3년 연속 하락(43개소)		
	시(8개)	군(18개)	구(13개)	시(10개)	군(19개)	구(14개)
교통사고	광양	함안, 고성	대전 유성 울산 북구	-	곡성, 청도	-
화재	진주	보은, 진천 진안, 강진 영덕	서울 영등포 광주 동구	동해	연천	서울 노원 부산 북구 부산 사상 광주 북구
범죄	동두천 보령, 나주	-	-	여주	홍천, 완도	-
생활안전		인제, 울진	서울 도봉			인천 남구 인천 계양
자살	-	단양, 영양 창녕, 산청	서울 중구 서울 동대문 부산 서구 대전 동구	-	영동, 홍성 고창, 보성 화순, 거창	인천 부평 울산 동구
감염병	남원	화순, 영양	서울 중구 대구 중구	과천, 구미	양구, 인제 무주, 구례 의령	대구 북구 대전 대덕
자연재해	안산, 목포	진도, 양양 옥천	서울 성북 부산 사상	부천, 고양 파주, 안성 당진, 상주	청송, 청도 성주	대구 중구 인천 남동 대전 중구 울산 중구

붙임 4

분야별 최대 변동폭 및 지역(기초)

분 야 (최대 변동폭 + : 급등, - : 급락)	등급 급등(27개소)			등급 급락(25개소)		
	시(2개)	군(13개)	구(12개)	시(2개)	군(16개)	구(7개)
교통사고 (+3, -3)	-	부여	서울 중구 인천 동구	-	장수	서울 동대문
화재 (+3, -3)	-	횡성 순창 괴산	부산 서구 대구 중구	-	화천 철원 증평 영양	대전 대덕
범죄 (+2, -2)	-	산청	-	-	횡성, 증평	-
생활안전 (+2, -2)	-	-	서울 광진 서울 금천 서울 서초 서울 강남 서울 동대문	-	-	인천 서구
자살 (+4, -3)	-	장수	-	-	부여	울산 동구
감염병 (+3, -2)	-	군위 청도	대구 중구 서울 중구	-	가평 평창 옥천 영광 옹진	서울 종로 인천 연수 대전 유성
자연재해 (+3, -3)	오산 군포	진천 단양 부안 담양 영암	울산 남구	부천 상주	가평 의성 고령	-

□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현황**

연 도	전체 사망자 수(명, A)		안전사고 사망자 수(명, B)		안전사고 사망률 (%, B/A*100)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	
2013	266,257	-	31,015	-	11.6
2014	267,692	+0.5	29,349	△5.4	11.0
2015	275,895	+3.1	28,784	△1.9	10.4
2016	280,827	+1.8	28,218	△2.0	10.0
2017	285,534	+1.7	27,154	△3.8	9.5

※ △(전체 사망자)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질병, 사고 등 각종 이유로 사망하는 전체 인원
 △(안전사고 사망자) 1년 동안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한 인원
 △(비율) 안전사고 사망자/전체 사망자 * 100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 현황**

분야	위해지표	연도별 통계				'16년 比 증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재	화재사망자수	322명	249명	291명	338*명	+47명(16.2%)
	화재발생건수	41,624건	43,915건	42,947건	43,747명	+800건(1.9%)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망자수	4,489명	4,380명	4,019명	3,937명	△82명(2.0%)
범죄	5대 범죄 발생건수	578,334건	560,813건	527,207건	497,005건	△30,202건(5.7%)
생활안전	구급건수	148,943건	157,075건	150,250건	151,122건	+872건(0.6%)
자살	자살사망자수	13,836명	13,513명	13,092명	12,463명	△629명(4.8%)
감염병	법정감염병 사망자수	2,765명	2,798명	2,726명	2,391**건	△335명(12.3%)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값	0.739점	0.651점	0.631점	0.473점	△0.158점(33.4%)

*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및 동탄 상가 화재(사망 4명) 등 대형화재 발생 증가
 ** (감염병) 결핵 사망자수 급격히 감소('16년 2,186명→'17년 1,816명)

분야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교통 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500) ※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①재난 약자수(.139) ②의료보장 사업장수(.014) ③자동차 등록대수(.097)	①행정구역 면적당 응급의료기관수(.080) ②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076) ③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094)
화재	환산사망자*(.500) *사망자(0.496)+ 발생건수(0.004) ※ 교통사고 화재 제외	①재난약자수(.155) ②주점업 등 종사자수(.063) ③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업체수(.032)	①의료인력(.082) ②발생건수당 화재구조실적(.070) ③행정구역 면적당 소방서 종사자수(.098)
범죄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500)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①인구밀도(.117) ②제조업 업체수(.027) ③주점업 등 업체수(.106)	①경찰 종사자수(.153) ②범죄예방 CCTV대수(.097)
생활 안전	생활안전 관련 구급건수(.500)	①건설업 종사자수(.056) ②제조업 종사자수(.037) ③재난약자수(.157)	①구급센터당 전체 이송건수(.075) ②의료기관수(.084) ③행정구역면적당 AED설치대수(.091)
자살	자살 사망자수(.500)	①독거노인수(.139) ②주점업 등 종사자수(.038) ③기초수급자수(.073)	①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098) ②자살예방관련기관수(.095) ③기초생활보장 비율(.056)
감염병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①고령 인구수(.155) ②의료급여1종 인구수(.070) ③건강보험 외래급여일수(.024)	①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085) ②취약계층지원 비율(.113) ③면적당 지역보건기관수(.052)
자연 재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